귀중한

아호



아호 증서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호 설명서 첨부

신생아

작명



작명 증서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작명 설명서 첨부

★ 잘될 사람이 받는 아호 ★

아호

법호 鏡虛(경허)	宋東旭(송동욱)	佛 대 선사
峨山(아산)	鄭周永(정주영)	前 현대그룹 총수
湖巖(호암)	李秉喆(이병철)	前 삼성그룹 총수
巨山(거산)	金泳三(김영삼)	前 대통령님

아호는 人生 삶에 바른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스승과도 같아서
훌륭한 사람들은 이름외 따로 아호나, 법호가 있다.
본 연구소에서 신생아 작명과 아호를 받은 동자 신준원은
스리랑카 대통령님이 안아주시는 영광을 받았다.〈사진 참조〉

인생 삶에 내 처지를 곤궁하게 한다면 나는 지혜롭게 아호나 법호를 받아
이 참된 도리를 깨우쳐 활동하게 할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인생 삶도 나를 어찌 하겠는가? 권세있고 재물이 많아도 人生 삶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잘될것을 구하려 하십니까?
아호는 결혼하는 예비 신부측에서 배우자가 될 예비 신랑의 사주단자를 풀어서 미리 알고
결혼하면 백년해로에 **꼭** 필요한 아호를 권장합니다.

♣ 자식이 귀중하니 귀중한 아호를 권합니다.

★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아기를 키우실때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환경을 맞추면
부모는 좋지만 체질이 다른 신생아는 아직 의사표시가 어려워 울며 고통스러워 할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작명은 평생같이 할 동반자이다.
동반자를 함부로 만나면 안된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이름을 함부로 지어준 부모는 천하에 무궁한데
작명의 이치를 알고 지은 부모는 능히 몇이나 되겠는가?
평생 쓰는 자기이름 뜻도 모르고 산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잘될것을 구하려 하겠는가?

법사 방필석 대내외 활동

-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받아감)
- 스리랑카 대통령님 각 4회 초청 방문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작명과 아호를 신청한 분은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에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낭독한
친필 메시지와 친필싸인(복사본)과 법사 방필석이 직접 촬영한 달라이라마 사진을 드립니다.



선행을 하는 법사 방필석과 스리랑카 대통령님.(2015. 8. 24.)
남을 위하는 일이 자기를 위하는 일이다.



좌로부터 법사 방필석, 본 연구소에서 신생아 작명, 아호 받은 동자 신준원을
안아주시는 스리랑카 대통령님.(2015. 8. 24.)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8-5577, 팩스 02)738-2046
농협 : 053-02-155-065(예금주 : 방필석)
국 내외 우편 발송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등용문빌딩 201호(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 필 석